

광주 동구 소상공인 역량 강화 포럼

“지역 자원 활용·자생력 높여 복합쇼핑몰 대응”

유영태 이사장 “가격 경쟁 대신 가치 전략 수립 중요”

임창욱 이사장 “브랜드·스토리 강화·온라인 홍보도”

지방의 소상공인들이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의 활용과 자생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동구는 지난 22일 YMCA 무진관에서 ‘소상공인 역량 강화(JUMP-UP)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위기에 대응하고 상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택 동구청장, 문선화 동구청장을 비롯해 전통시장·상점가 회장,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영태 지방소매대응협회 이사장, 임창욱 지역상권육성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각각의 주제에 따라 발표를 진행했다. 포럼은 유영태 이사장의 ‘복합쇼핑몰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그는 “복합쇼핑몰은 싸고 좋은 상품으로 지역 상권의 고객들을 끌어들이고”면서 “이는 독점적

시장 지배력 확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소상공인에게 큰 위협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합쇼핑몰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으로 전략 수립, 역사·문화·예술을 활용한 관광·쇼핑 연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지역 언론 간 협력체계 마련, 트렌드 공부, 온라인 홍보가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임창욱 이사장은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선행적 제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 고유성, 인간적 관계 등을 언급하며 로컬 감성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임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점포 리부 관리, 유튜브 운영 등 디지털 전환을 비롯해 지역 특색을 담은 브랜드·스토리 강화, 친절·위생 이미지 구축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복합쇼핑몰은 표준화·대량생산이 강점이지만 지역 고유성, 네트워크에 약하다”며 “상인회 공동마케팅, 지역 청년·예술가 팝업스토어



광주 동구는 지난 22일 YMCA 무진관에서 ‘소상공인 역량 강화(JUMP-UP) 포럼’을 개최했다.

운영 등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일 토론회에서는 상인회-지자체 소통 강화, 전략수립 구체화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광미란 금남2공구상인회장은 “중장기 르네상스 사업으로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식 동구위원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2년 밖에 없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상상, 견제를 하

려면 행정과 함께 영업시간·업종조정 등 방어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동떨어진 정책이 나오면 상권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임택 청장은 “복합쇼핑몰과 대형 유통시설의 확산은 소상공인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늘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이다”며 “중장기 르네상스사업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골목여행, 핫플레이스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PEOPLE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HD현대상호 전남수목비엔날레 성공 기원

(재) 전남문화재단(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22일 전남도청에서 HD현대상호와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임직원 구매의정을 했다. 약정은 전남을 대표하는 글로벌 조선해양 기업인 HD현대상호가 2000만원 규모의 임직원 구매를 통해 지역 대표 문화행사인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한정동 HD현대상호 부사장과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 구매한 임직원은 임직원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HD현대상호 전남 문화예술 발전을 함께하는 의미 있는 동행을 해줘 감사하다”며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국내외 관람객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치러지도록 마지막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진도·해남 등 전남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양신승 교수, 광주 무형유산 판소리교법 보유자 인정

인정 고사...고 감남종 선생 전승교육사로 전승활동·기량 탁월

광주시는 양신승 교수(사진)를 무형유산 판소리교법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판소리교법은 판소리 공연에서 고수가 북으로 장단을 맞춰 반주하는 전통음악 기법을 의미한다. 고수는 소리꾼의 리듬을 조절하고 극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역할을 하며,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판소리에서 중요하다. 양신승 교수는 판소리교법의 전승 활동·기량·역량·기량 등이 탁월해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됐다. 양신승 보유자는 고(故) 감남종 선생의 전승



교육사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양 보유자는 그동안 전통문화관과 빛고을국악전수관, 빛고을소리청 등에서 전승활동을 했다. 전승희 문화유산지원과장은 “판소리교법 분야의 신규 보유자가 인정돼 기쁘다. 판소리 분야의 활발한 전승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는 봉사단체인 ‘작은사랑동우회’가 최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재)빛고을장학재단에 빛고을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작은사랑동우회, 빛고을장학금 2000만원 기탁

김승희 회장 “미래주역들 꿈 이룰 수 있게 힘써달라”
강기정 시장 “지역인재 성장의 소중한 디딤돌” 감사

광주시는 봉사단체인 ‘작은사랑동우회’가 지난 22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재)빛고을장학재단에 빛고을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청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장학금 기탁식에는 빛고을장학재단 이사장인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작은사랑동우회 김승희 회장과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작은사랑동우회는 ‘사랑과 희망을 나누면 보람이 된다’는 마음을 담아 1985년 5명이 모여 시작했다. 현재는 150여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생활자금 및 학자금 지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승희 작은사랑동우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미래의 주역인 지역인재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

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사랑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오랜시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주신 작은사랑동우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탁금은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감사해 했다. 한편 2002년 무등장학회에서 확대 개편된 빛고을장학재단은 매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453명의 중·고·대학생에게 49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빛고을장학재단은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부터 장학생 선발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올해부터는 장학금 지급액을 확대해 광주 미래 주역들의 내일이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국제청소년문화원은 최근 ‘제2회 부모와 함께 배우는 나라사랑 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국제청소년문화원, ‘제2회 나라사랑 캠프’ 성료

국제청소년문화원은 최근 ‘제2회 부모와 함께 배우는 나라사랑 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전남 지역 조손·한부모 22가정 85명이 참여했으며, 애국지사 가족과 경찰 가족도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숲 해설 수업을 통해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역사 골든벨 퀴즈로 독립운동사와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또한 천연염색 체험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체험하고, 세대 간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근우 이사장은 “이번 캠프는 단순한 체험활동을 넘어 세대가 함께 배우고 공감하며 나라사랑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 소프트웨어 강사 역량 강화

전남도는 22~23일 국립나주승제원에서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2025년 전남 소프트웨어(SW) 미래채용강사 네트워크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 소프트웨어 미래채용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남지역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전문강사 120여명이 모여 우수사례 공유, 명사 특강, 해커톤 연수, 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미래채용사업을 추진하며 도민 8만8000여명 교육, 일자리 238개 창출, 전문강사 247명 양성, 지역 특화 커리큘럼 60건 개발 등 거시적 성과를 거뒀다. 심상환 전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장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은 미래 전남을 이끌 핵심 자산”이라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게시판

-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7500.

운세

- 48년생 전면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60년생 여행을 떠나면 귀인을 만난다 72년생 행복의 문이 서서히 열린다 84년생 무리하다면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 96년생 새로운 이성은 사귀지 말라 51년생 득 되는 것이 전혀 없다 63년생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낸다 75년생 추진하는 과정에 충실하라 87년생 상호간에 발전을 이끌 것이다 99년생 일단 맛있는 것부터 먹으라 54년생 관재수 따르니 금전관리를 잘하라 66년생 피곤해 의욕이 저하된다 78년생 전도양망하니 대단히 희망적이다 90년생 역마살이 들어왔으니 동분서주 57년생 바빠 돌아다니는 안정감 없는 날 69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재상승식 된다 81년생 안목을 넓혀 처신하라 93년생 적응하게 될 것이니 묵묵히 임하라 49년생 이를데 없이 귀하지만 자만하지 말라 61년생 말 무서하지 말고 조언을 받아들여라 73년생 지인과 일을 시작하는 것이 길하다 85년생 예상되는 경쟁에 대비하라 97년생 미래 지향적 생각으로 판단하라 52년생 지인의 투자 유혹 등을 조심하라 64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다 76년생 돈소문을 많이 듣게 되니 주의 88년생 때가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라 55년생 욕심은 금물 한발 물러서라 67년생 못하지 않던 감투를 쓸 운 79년생 중단 없이 전진으로 성과를 이룬다 91년생 신중하면 득을 얻는다 58년생 마음먹은 대로 추진하면 해결된다 70년생 바른 마음으로 일을 피하라 82년생 강한 라이벌이 있더라도 이기게 된다 94년생 헤어졌던 짝을 우연히 상연할 것